

조비오 신부 등 숯한 증언에도 군당국 부인

36년 이어온 헬기난사 논란

군 당국은 한결같이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사는 없었다”고 부인해왔지만, 광주에서는 5·18 진상규명 직후부터 목격담과 증언이 쏟아졌다. 지난 36년간 결정적 물증이 없어 군당국 주장을 뒤엎지 못했을 뿐, 계엄군 헬기 사격은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계엄군 헬기 기총사사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89년 2월 23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광주 청문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는 “헬리콥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조 신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확히 1980년 5월 21일 낮 1시 반부터 2시 반 사이 호남동 성당 주변 상공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났고, 공중에서도 발포한(불빛) 소리가 들렸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그는 “군 당국이 헬기 기총사사를 인정할 경우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을 넘어, 정당방위나 자위권 발동이라는 그간의 발표 이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며 “군은 절대 헬기 기총사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 증언에서 계엄군 헬기 소사를 증언한 이후 육군본부, 민정당에서 형사고발을 당했다. 또 당시 대령 신분으로 군에 있던 동생이 직접 찾아와 “증언을 취소하라. 군은 기총사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자 “야 이놈아, 너 못 벗어.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네 신상에는 이로울까 몰라도 내 양심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던 일화도 남겼다.

지난 1995년 7월 22일자 광주일보 ‘무장헬기 30대…총 쏘냐 안 쏘냐’라는 제목의 기사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사

5·18 청문회 때 “공중서 드르륵 드르륵 수차례 총성·불꽃”

피터슨 목사·시민 증언에도 검찰 “헬기사격 없었다” 결론

증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검찰의 5·18 수사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피터슨 목사의 증언과 다수의 광주 시민들의 목격담을 전했다. 당시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하

던 이광영(42)씨는 “5월 21일 오후 2시께 헬기 사격으로 15~16세의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선교사로 광주에 있었던 미국의 피터슨 목사는 지난 1994년 펴낸 책

‘518 광주사태’라는 체험기를 통해 “21일 오후 3시15분쯤 헬기가 거리에 있는 군중에 총을 쏘기 시작한 이후 사상자들이 병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썼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비오 신부, 다수의 광주시민, 피터슨 목사의 체험기 등을 통해 계엄군 헬기 기총사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됐음에도 명쾌한 반증자료 제시 없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옛 도청 보존 천막농성 100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5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들은 5·18 시민군 최후 항쟁지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I 신고 직전 여수에 닭·계란 ‘암체 출하’

세종시 농장 닭 10만마리·계란 288만개 전국 유통

여수 도계장 들어온 수출용 4만여마리 전량 폐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형) 확진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에 닭과 계란을 여수 등지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인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농가의 AI 의심 닭 4만 마리는 여수 도계장에서 도축했지만 수출 직전 폐기됐다.

14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를 하기 직전인 24일과 25일 닭 10만3000마리를 여수와 경기 파주의 도계장으로 출하했다. 이 가운데 4만 마

리가 수출을 위해 여수 도계장으로 들어왔지만 유통 직전 전량 회수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은 또한 20일부터 25일 사이에 계란 288만여 개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계란의 경우 집하장에 있던 13만4000개는 폐기했지만, 27만9000개는 유통 채널을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폐기 처분된 닭고기보다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유행 우려가 남지

않고, 농식품부와 수의학 전문가들은 인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기 전에 외부 표면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잔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축질병 전문가인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 교수의 “바이러스가 묻은 계란이 다른 농장으로 갔다면 미량이라도 그 농장에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체 감염이 될 수 있을지 부분은 미지수”라며 “이번 AI 바이러스는 가금류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로서 인체 감염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

염되려면 ▲사람의 상부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붙어 하고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적절한 체온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람과 조류의 상부호흡기 구조가 다른 데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에 달라붙을 만큼 변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닭의 체온(41도)과 사람의 체온(36.5~37도)은 4도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류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자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마릿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14일 현재 전국 257농가에서 1066만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고, 27농가 378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전남에선 AI 확진을 받은 6개 농가와 예방적 차원에서 의심단계인 8개 농가 등 14개 농가에서 1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남뉴스

광주지검 기능직 특채되고도 5년간 정식임용 안돼

“국가가 무기직 4명에 손해배상” 판결

기능직으로 특채되고도 5년간 정식 임용되지 않은 검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33)씨 등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03년부터 광주지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8년 2월 광주지검 기능직(10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5년간 임용 또는 임용거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이들이 광주지검을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하자 같은 해 12월 “합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다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 2014년 5월 승소 판결을 받고 합격했

지 6년 만에 임용됐다.

이들은 정식 임용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명절휴가비, 수당,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지검은 원고들의 신뢰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절의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자 그때야 임용했다”면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개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미지급한 급여, 수당 등 3014만~378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계약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 공기업 지역본부장 구속

공기업 지역본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유시강간치상)로 공기업 간부 A(4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추행해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함께 식사를 한 후 A씨의 술자리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해오다 구속 직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해온 점, 업무상 관리감독하에 있는 여직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임명규 도의회 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임 의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

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2014년 이용부 보성군수에 게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수천만원 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보성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체류 외국인 교통 단속 걸리자 차 버리고 줄행랑



○ 불법체류 외국인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의 단속이 걸리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의 A(37)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취업비자로 들어왔다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 아내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단속되자 불법체류가 탄로날까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
	실용음악학과	○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0(금)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 집 인 원	지 원 자 격
2학년	○명 (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1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1로 36